


설교

Sermon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라”
(Must Pay Much Closer
Attention to What
We Have Heard)**



25일 월요일: 디도서 1:10-16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두고 할 일을 맡겼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과 악함과 게으름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크레타 사람들에게 접근한 할레파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26일 화요일: 디도서 2:1-8

크레타섬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7일 수요일: 디도서 2:9-15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쓸 무렵에는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였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되었습니다.

28일 목요일: 디도서 3:1-15

구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잘 대해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로 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1일 금요일: 히 1:1-4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2일 토요일: 히 1:5-14

히브리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친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대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고 굳게 간직하십시오(1-3a).

(히 2:1, 새번역)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Heb 2:1, ESV) Therefore we must pay much closer attention to what we have heard, lest we drift away from it.



(히 2:2, 새번역)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값을 받았거든,

(Heb 2:2, ESV) For since the message declared by angels proved to be reliable, and every transgression or disobedience received a just retribution,

(히 2:3, 새번역)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깊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Heb 2:3, ESV) how shall we escape if we neglect such a great salvation?

(창 4:6, 새번역) 주님께서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나?"

(Gn 4:6, ESV) The LORD said to Cain, "Why are you angry, and why has your face fallen?"

(창 4:7, 새번역)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Gn 4:7, ESV) If you do well, will you not be accepted? And if you do not do well,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Its desire is for you, but you must rule over it."

(창 4:9, 새번역) 주님께서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Gn 4:9, ESV)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ere is Abel your brother?" He said, "I do not know; am I my brother's keeper?"

II. 귀중한 구원은 확증된 진리
임을 믿으십시오(3b-4).

(히 2:3, 새번역)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
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Heb 2:3, ESV) It was declared at
first by the Lord, and it was
attested to us by those who heard,

(행 2:32, 새번역)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Ac 2:32, ESV) This Jesus God raised up, and of that we all are witnesses.

(히 2:4, 새번역)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Heb 2:4, ESV) while God also bore witness by signs and wonders and various miracles and by gifts of the Holy Spirit distributed according to his will.

III. 귀중한 구원은 예수님이 낮아지고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5-9).

(히 2:5, 새번역)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Heb 2:5, ESV) Now it was not to angels that God subjected the world to come, of which we are speaking.

(히 2:6, 새번역)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Heb 2:6, ESV) It has been testified somewhere,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or the son of man, that you care for him?"

(히 2:7, 새번역)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Heb 2:7, ESV) You made him for a little while lower than the angels; you have crowned him with glory and honor,

(히 2:8, 새번역)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Heb 2:8, ESV) putting everything in subjection under his feet." Now in putting everything in subjection to him, he left nothing outside his control. At present, we do not yet see everything in subjection to him.

(히 2:9, 새번역)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Heb 2:9, ESV) But we see him who for a little while was made lower than the angels, namely Jesus, crowned with glory and honor because of the suffering of death, so that by the grace of God he might taste death for everyone.